

제61회 식목일 대통령 격려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산림청장 보고가 끝났을 시점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보고를 잘하셔서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그 박수 속에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성과와 성공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무심으러 나오신 뜻에 대해서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뜻을 함께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나라들을 다닙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내려다보게 되는데, 내려다보면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혹은 못 사는 나라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내려다보면 숲이 푸르고, 가난한 나라는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숲이 푸른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림정책을 그동안에 참 잘해왔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숲을 잘 가꾼 결과로써 우리도 좋은 숲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차를 타고 그 나라의 수도인 서울거리를 보게 되면 마을과 도시의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숲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나라 보다 수준이 낮게 보이는 나라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마을과 도시의 숲을 이 수준으로 좀 가꾸어 놓아야 우리도 수준이 있는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리면서 보니까 멀쩡하게 숲이 울창한 곳에 와서 여러분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니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데 무슨 나무를 또 심느냐 그러나 이것은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푸른 숲이 아니고 경제성이 있는 숲으로 가꾸어 보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산림정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제성이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식목을 하는 것이지요. 욕심을 좀 더 내자면 마을마다 마을숲을 가꾸어서 숲이 있는 마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전 국토의 숲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마을이 많이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회지에 살고 있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뛰놀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생활에서 숲이 많으면 도시의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환경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도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숲이 제일 많은 곳이죠. 그렇게 때문에 환경도 훨씬 더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덜 시끄러워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시숲도 앞으로 좀 더 잘 가꿀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도시숲까지 가꾸는데는 아직 정책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개 도시는 행정관할이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앞으로 관리하는 관할들도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에 있는 숲이 공익적인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여러분이 함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숲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69조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59조 입니까? 제가 10조 슬그머니 올리려고 했더니 안되네요. 59조인데 우리나라 전체의 GDP가 700조 정도 됩니다. 700조 정도이니까 59조 이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통계를 낼 때도 항상 경제성장률 통계와 GDP통계만 내는데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도 함께 평가해서 삶의 질이라던지 국민에게 기여하는 복지를 전부 지수로 계산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숲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인데 전체적으로 59조하면 참 크지요? 그중에서도 도시 안에 있거나 도시 가깝게 있는 숲일수록 공익적 기능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익적 기능을 가치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숲을 가꾼 사람에게 적절하게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을 펴으면 합니다.

따라서 산림청장과 상의하고 연구해서 예를 들면 같은 도시의 땅이라도 일부러 숲을 조성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도시의 환경이라는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차등으로 부가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안에서 우리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시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 심으시구요.

감사합니다.